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양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35.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287장
대표기도 / (1부) 김춘자 권사 (2부) 윤성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누가복음 5:12~16
찬 양 / (2부) 시온 찬양대
말 씀 /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I Am Willing, Be Clean.) / 전종남 목사
찬 송 / 471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250장, 268장 기 도 / 김영덕B 집사
성경봉독 / 레위기 23:4~8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씀 /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 전종남 목사
(Let Us Remember the Grace of Salvation.)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200장, 502장
성경봉독 / 베드로전서 2:1~10
말 씀 /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How to Live as God's People) / 전종남 목사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에스겔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권유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예배 위원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8월	1부	2부
박영미 집사	윤결태 장로	남정옥 권사	안내	김춘자	유병용 황하연 김영화
			헌금	문미경	최영종 이영희 전복희 유경순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 일 조	김신영 김영화 김춘예 김형문(신승희) 윤결태(김연주) 최영종(전숙희)				
감사헌금	김선정 김순천(연운희) 김해임 남정옥 문미경 심상현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 윤결태(김연주) 윤진태(이기숙) 이상유 이상혁(송미숙) 이옥미 전종남(최경애)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최영종(전숙희) 홍우표(윤명란)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자녀장학금감사: 김선정				
선교헌금	김홍엽 윤결태(김연주) 이상혁(송미숙)				
교육헌금	김춘자 윤결태(김연주) *부서헌금: 유초-중고				

지난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8.23.)

빈 배를 채우시는 주님(눅5:1-11)

전 종 남 목사

우리는 살아가면서 밤새도록 수고를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빈 배’(Empty Boat)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동료들도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채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주님께서는 우리의 빈 배에 찾아오십니다(1-3절).
예수님께서는 물고기가 가득한 배가 아니라,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강대상 삼아, 육지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실패한 배가 주님의 쓰임을 받은 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의 부족함, 자녀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가 아니라, 그 배에 예수님께서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2.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4-7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자,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기도하고, 다시 사랑하며, 다시 소망을 품읍시다. 주님께서 만선(滿船)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3.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사명을 주십니다(8-11절).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빈 배를 채우는 목적은, 복을 누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로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빈 배가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빈 배가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형편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빈 배를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